

# 전북교육-경남교육, 교육발전 정책 공유

### 서거석 교육감, 경남교육청 찾아 미래교육 등 협력방안 모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교육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양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미래교육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경남교육청의 주요 정책 소개에 이어 △온라인학교 △교과권 △미래교육, 미래교육연구원 스마트기기 보급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양 기관 직원들은 3월 개교하는 경남온라인학교, 교과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등에 대한 공정한 내용들을 논의하며 정책을 공유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용 아이박스(스마트기기) 보급 및 환경 구축 △7월 개원하는 미래교육원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정책협의회 이후에는 창원 거점통합 돌봄센터인 '늘봄명서'와 마산 복합문화공간인 지혜의바다도서관, 진주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등 경남의 혁신 교육기관을 차례로 살펴봤다.

한편 양 기관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미래교육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미래교육은 이미 시작했다. 공존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듯 경남과 전북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공유해 대한민국 교육을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기초·기본학력을 비롯한 학력 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수업혁신과 미래교육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양 기관이 교육정책을 공유하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한단계 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경남교육청에서 양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미래교육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도교육청,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 내달 31일까지 도내 학교 기관 978곳 대상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오는 3월 31일까지를 2023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학교 및 기관 978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실학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기 취약시설인 D·E등급의 구조취약 건축물과,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옹벽·절개지 등 시설물, 화재취약이 높은 기숙사와 실험실습실, 공사장 등이다.

특히 신학기 개교 예정인 학교 주변 통학로와 학내 보행로 공사장 근로자 안전관리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안전점검 결과 현장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시정자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결함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중대한 결함 또는 붕괴·전도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주 시설과장 직무대리는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실학교 안전점검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재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설명회

###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업무담당자 대상 올해는 전임교사도 참여... 오늘까지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23일까지 3일간 창조나래(별관)에서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새학년 준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연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특색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3학년도 전임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첫날인 지난 21일에는 장애학생의 자립 및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안내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절차 등이 연수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등 교육지원 연수 등을 실시했다.

22일에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우수사례 공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지원

문제를 대상으로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23일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 절차 등을 중심으로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통학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특수교육 시설치교 대상 순회교육 강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교실속 스마트기기 활용하기'를 주제로 정보화교육을 기획하고, 또 에듀테크 기반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번째 연수로, 3월 새학기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북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21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도내 대학 LINC 3.0 사업과 관련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및 산학협력 공유·협력 활동의 증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 도내 8개 대학, LINC 3.0 산학협력 협업 '맞손'

### 전북대·전주대·우석대 등

교육부의 LINC 3.0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지역 8개 대학이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및 산학협력 공유·협력 활동의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1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5층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이준영 전북대 LINC 3.0 사업단장, 최영삼 원광대 LINC 3.0 사업단장, 장기성 원광보건대 LINC 3.0 사업단장, 송철규 전북대 LINC 3.0 사업단장, 조덕현 전주전대 LINC 3.0 사업단장, 주승현 전주대 LINC 3.0 사업단장, 최승훈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장 등 각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각 대학과 지자체의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산학협력 공유·

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와의 지역 사회 연계 사업성과 창출 협력 △산학협력 공유·협업을 통한 교류 △글로벌 산학협력력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특화분야 산학공동연구과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협력 △교육·연구·기술 등 정보교류 △인력·시설·설비 등 공동 활용 등이다.

이 자리에서 각 대학 LINC 3.0 사업단장들은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과 산학협력의 공유·협력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학별 특화분야의 정보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은 물론, 전북지역의 신성장산업 발전과 상리공생(相利共生)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뜻을 모았다." /정은성 기자

# "원대한 꿈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 전북대 2022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3711명에 학위 수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2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분부를 시작으로 진수당까지 이어진 학사행렬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좌자, 학부위원, 역대 총장단, 총동천회장, 교수회장, 학위수여 대표자 및 학부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학사 3,024명, 석사 551명, 박사 133명 등 3,711명을 대표해 9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특히, 박사학위 수여자를 대표해 연설에 나선 몽골 국적의 경영학 박사 자르갈마는 학업을 넓고 깊은 바다에 비유하면서, "인하할 때는 바다로의 긴 여정을 떠나고, 졸업할 때는 귀하고 빛난 보석을 얻어 돌아온 느낌으로 전북대에서 성취를 이뤘다"고 말해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공공인재학부 최도영 학생 등 120명이 우수졸업생으로 선정됐고, 식품공학과 최수오 학생 등 29명이 핵심인재상을, 나노융합공학과 다 슈라펠 박사 등 35명이 우수연구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대학 측은 이날 학위수여식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전북대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졸업생 관계자들이 졸업생을 축하해주고 있다.

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건지광장과 중앙도서관, 진수당 등에 포토존을 설치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졸업식을 통해 졸업생들이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세상에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세계 무대로 나서는 오늘 먼저 눈앞의 작

은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원대한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회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 더 많이 듣고 서로 힘을 모으는 화합형 인재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할 때 자신의 가치가 더 빛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 승진 69명 등 총 480명 규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조직개편에 따른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 69명, 전보 및 조직명칭 변경 366명, 신규임용 20명 등 총 480명이다.

먼저, 인사교류문화화와 관정에 김형태 서기관(현 재무과장)을 전보 발령했다. 특히 이번엔 신설된 학교안전과장에는 노경숙 사무관을, 노사협력과장에는 심화정 사무관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 재무과장에는 최선자 사무관을,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에는 김종현 사무관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한편 신규임용 발령은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이 고려됐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박성현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학생중심 미래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주대 간호학과, 실습실 새로 구축

전주대학교 간호과는 입학정원 증원에 따라 학과 실습실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간호과는 교육부로부터 2022년 입학정원 10명과 2023년 입학정원 11명 증원을 연속으로 승인받아 모집정원이 총 21명 늘었다.

이에 전주대 스타누리관에 간호학과 전용 강의실을 배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VR을 활용한 선진화 된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학 실습실을 총괄하는 허명륜 교수는 "최신 기자재를 활용한 간호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주대학교 졸업생들의 임상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나아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간호학과는 교육비전을 '전인간호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능한 간호 인재 교육의 산실'로 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검토해 앞서가는 간호교육 기관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말레이시아에 HATCH 글로벌거점센터 구축

### 전주대 LINC 3.0사업단 쿠알라룸푸르지회와 협약 '협약 발판으로 지역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도울 것'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1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쿠알라룸푸르지회(지회장 이미태)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HATCH글로벌 거점센터 현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LINC 3.0 사업단, World-OKTA 쿠알라룸푸르 지회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현재 10개의 HATCH글로벌거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11번째 거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LINC 3.0 사업단을 중심으로 교부가가치 지역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상품의 국내·외 글로벌 무역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노력하고, 상호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송 단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의 협약을 발판으로 지역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돕겠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거점센터를 구축해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가족회사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